

遺憾(유감)에 대한 小考(소고)

최 근 북한의 비무장지대 목함지뢰도발사고에 대해 남북 최고당국자들끼리 무박 4일 장시간 회의를 거쳐 나온 8.25 합의 공동보도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폭팔로 남측군인들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하였고 이러한 공동보도문에 대해 우리 측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9월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공동보도문에서 북측이 지뢰폭팔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 이를 “사과”라고 해석한 것은 남측의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감표명은 사실상 문병을 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담화는 계속해서 “유감”이란 “그렇게 당해서 안됐습니다”하는 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유감이라는 문구를 북조선식 사과로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선글자의 뜻과 단어의 개념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25 합의 내용은 이행하겠다고 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그 동안 북측은 그 동안 자행한 무장공비사건, 도끼만행사



김 동 기
한국양계축산업협동조합 상무
/ 본지 편집위원

건, 북한의 제2연평해전, 연평도포격 때에도 깊은 유감표명은 수차례 있었으나 진정한 사과는 한 번도 없었다.

유감에 대한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1)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하고 섭섭한 느낌 (2)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다. 한자의 의미도 남길 遺, 한할, 섭섭할 憾으로 섭섭한 맘이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영어 사전적 의미는

regret, pity, sorrow, I am sorry 등이다. 단어 자체에는 사과라는 의미는 없다. 사과에 대한 영어단어는 apology, 그러나 국가 간의 외교문제에는 사과라는 표현이 부담스러워(?) 대신 유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래서 상대국입장에서 억지로 의미를 부여하여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 5월 24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만찬사에서 아키히도 일왕은 “우리나라에 의해 초래되었던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본인은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 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였다. 당시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난해한 기발한 단어라고 평가가 나왔던 통석의 염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유감정도의 표현이며 사죄의 의미는 담기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이 있었으나 일본 측에서는 사죄의 뜻도 담긴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영문보도자료는 지극히 유감스럽다는 뜻인 deepest regret로 보도된 것을 볼 때 일본의 이중적인 행태를 엿 볼 수 있다. 통석(痛



惜)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단히 슬프고 애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고 통절(痛切)은 뼈저리게 뉘우치다라는 뜻이다. 사과의 내용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통절의 염”이라고 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이 애매한 “통석의 염”에 대해 과거의 유감표현보다는 사과의 강도가 높은 것이라고 극구 강조하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경우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인 관계뿐 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보더라도 사과하여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감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구렁이 담 넘어 가는 듯 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정치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많으며 사회지도자가 되는 이의 말속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 경우에 유감스럽다고 하여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어정쩡한 말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으면서도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표현인 “송구하다, 송구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 마음이 거북하다 인데 듣는 사람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까지 알아서 확대해석해야 하는 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당사자는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도 말이다.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단어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단어의 뉘앙스를 교묘히 이용하여 분명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도 흐지부지 본질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남북간 서로의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감과 사과의 줄타기” 속에서 어렵게 화해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 만남도 어렵사리 성사되어 이산가족들의 기대가 크다. 경쟁률도 663:1. 남북통일의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분명 통일은 대박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들어 북한은 심각한 전력난, 물자난, 자금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주변국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지만 분명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남북이 상생 차원에서 경제협력을 잘 진행시킨다면 축산물 그중에서도 양계산물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대 수익이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유감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산업을 뒤돌아보고 재정비하여 통일 대박을 기대해 본다. **양계**

수입 중고 케이지 팝니다

건물 · 중추케이지 · 성계케이지 · 휘드빈 · 부착된 FAN 등 일괄 판매합니다.

내역

건물 12m×120m 중추사 1동, 성계사 1동, 슝 2동

케이지 중추케이지 4열4단 63,360 수용 1동
성계케이지 4열4단 63,360 수용 1동

휘도빈 11통 2통식 2동분 합 44톤용량

FAN 50" 52set

상기 모든 제품은 이태리 FACCO社 제품입니다.

동남양계센터 ☎ 010-5307-7208